metro 메트로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제3137호 www.metroseoul.co.kr

빚더미 LH, 공기업 개혁모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재영 사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국민이 두려워 [illegible] 시작이었지만 LH의 성공적인 한 [illegible] 넘어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적이 완성돼 [illegible] 있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LH는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사업시기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illegible] 매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말까지 국민 [illegible] 원 절감해 계획보다 6513억원을 조기에 [illegible] 조기 [illegible] 억원의 부채를 감소했다.

특히 매각실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부채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잠정 결산실적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105조7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줄었다.

금융부채 감축은 2009년 통합공사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성과로 지난해 9월 스탠더드&푸어스(S&P)가 LH의 신용평가등급 전망을 기존 A+(안정적)에서 A+(긍정적)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어 10월 발표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면에 계속>

임수경 "경찰 공안몰이 부당…조사엔 응할 것"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른바 '종북콘서트' 참석 경위 조사를 위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안몰이"라면서도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8개월새 부채 9조 감축

하루이자 100억 기업 이젠 안정적 재무구조로

<1면에서 계속>

이 사장은 LH 출범 5주년 기념사에서 "출범 첫 해만 해도 총 부채 105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을 기록하던 기업에서 안정적 재무기반을 가진 건실한 기업으로 변모했다"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변해야 살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솔선수범하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변화와 개혁을 진두지휘 해온 이재영 사장의 행보는 올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행복주택사업의 본궤도 안착의 해로 만들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H는 지난 달 19일까지 천안백석(562가구), 대전도안(181가구), 수원호매실(400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완료함으로써 27개 지구 2만1598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인천용마루지구 1500가구와 공주월송 200가구, 익산 인화 612가구 등의 인가를 받으며 전체적으로는 계획을 초과한 2만3468가구를 달성했다.

사업 진행도 원활하다. 이재영 사장 주재로 LH는 지난해 '행복주택 사업추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속한 사업승인 신청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어 최종 점검회의까지 개최했다.

7개 지구 4867가구의 행복주택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가좌지구(362가구), 서울삼전지구(40가구)와 오류동지구(890가구), 대구테크노(1022가구), 대구신서(1100가구), 고양삼송(834가구), 성남단대(610가구)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서울삼전지구는 오는 4월 입주자모집을 하고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첫 입주 단지로, 노후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동일 장소에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도심지내 저층 소규모 행복주택의 첫 번째 사례라 눈길을 끈다.

이재영 LH 사장은 "올 한해도 작년처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성과를 내서 100년 기업의 기틀을 다져갈 것"이라며 "미래역량 강화, 사업방식 혁신, 경영체질 개선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옥 기자

당신이 처음 산 음반은 무엇인가요

기자 수첩

김지한 <문화스포츠부 기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동 한 구석을 지키고 있는 음반사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모습에 추억이 절로 떠올랐다. 어린 시절 용돈을 모아 생애 첫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기억이 났다.

몇 년 전 홍대 앞 노란색 간판의 레코드 가게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돌자 온라인에선 이 가게를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이 일었다. 하지만 이 가게는 결국 후미진 곳으로 위치를 옮겼다. 대신 그 자리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지역주민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겼다. 과거에 비해 음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진 요즘 가게를 유지하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불렸던 1990년대 톱가수들에게 100만장 판매는 흔한 일이었다. 이들의 음악은 일명 '길보드(길거리 카세트 테이프 노점상)'의 테이프나 CD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은 MP3 파일이나 스마트폰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접하고 있다.

음악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음악도 함께 변했다. '1분 미리듣기' 안에 리스너의 귀를 사로잡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정 노래가 히트하면 비슷한 느낌의 노래가 우후죽순 쏟아졌다. 한 편의 시 같은 감수성 짙은 가사는 사라지고 후크송이 등장했다. 가수들 역시 정규 앨범 대신 디지털 싱글을 내놨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노래를 만드는 입장에선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인스턴트 음악을 비난하기에 앞서 오프라인 매장에 들러 CD에 담긴 노래를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여야 지도부 손은 잡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가졌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서울시내 성형외과 74.8%가 강남구에

● 서울시내 성형외과의 74.8%가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발표한 '2013년 기준 강남의 사회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병원 수가 서울시 전체 대비 의원이 3.4배, 병원이 3배 많았다. 특히 성형외과는 서울시 전체의 74.8%에 해당하는 321곳이 강남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16명으로 전국(19.1명)·서울시(22.1명)보다 많이 낮았고 공교육 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05점, 사교육 환경은 5.77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122만원에 달했다.

2030세대 10명 중 8명 "사회 정착 힘들어"

●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안정적 사회정착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30대 성인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니까'란 질문에 76.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 비율은 미혼(78.7%)이 기혼(68.1%)보다 더 높았다. 안정적 사회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장 많은 40.8%가 '물가 인상에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서'라고 답했다. 이어 36.7%가 '취업이 늦어져서'라고 답했고 34.1%가 '비정규직 등 일자리가 불안정해서'라고 답했다.

美, '조건부 핵실험중단' 北제안 재차 거부

미국이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임시중단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들의 제안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으로서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과 연결 짓는 것은 암묵적 위협(implicit threat)"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지난 9일 북측 제안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안이 실행될 경우 한반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미 기자 youtal@

"김정은 잠행 후 빨치산 2세대 수행 급증"

통일부는 지난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다리 부상에 따른 잠행을 끝낸 이후 빨치산 2세대 수행 비율이 급증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2014년 김정은 공개활동 현황' 자료를 통해 수행인물과 관련, "김정은 리더십이 반영된 수행그룹 비중이 확대됐다"며 "특히 김정은 잠행 이후 빨치산 2세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1세대 빨치산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수행 비율은 김정은의 잠행 전 마지막 일정인 모란봉악단 공연(9월3일)전에는 28%였지만 과학자주택지구사찰(10월14일)로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후에는 50%로 증가했다.

또 김일성과 함께 항일빨치산으로 활동한 혁명 1세대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오일정 노동당 군사부장도 잠행 전 0.76%에서 이후 25%로 크게 늘어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려는 상황에서 빨치산 2세대 출신들의 충성심을 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윤아 기자

CCTV 의무화…교사 자격 강화

여·야·정, 보육시설 학대 방지 긴급대책 마련 나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보육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당정은 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가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 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1인 시위 나선 인천 송도 학부모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연합회 소속 학부모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곡시장 화재 상가 11채 태워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재래시장인 도곡시장 B구 1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빠르게 주변 상가로 번져 5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탔고 6개 점포는 부분적으로 소실됐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불법비행 조사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승무원들이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실업무를 보다 국토교통부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15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8명이 약 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의 추가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들이 4일짜리 정기 보수교육을 지난해 9월 말까지 이수해야 했으나 행정상 착오로 받지 못했다. 실수를 확인하고 바로 교육을 완료했다"며 "승무원 자격관리 절차를 보완했으며 다른 승무원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12개월마다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객실승무원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객실승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해선 안 된다.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 운항정지 10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해당 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 운항하는 인천~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노선에서 근무했다.

/이정필기자 roman@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죄질 무겁다"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권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责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여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럽지 않다"며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음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인 지리과정에서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송병철기자 bcsong@

건보공단 서울본부, 미래선도 5대과제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5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 강원 지역 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지역본부는 2015년도 운영 목표를 '건강 보장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서울지역본부'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수입확충·지출 효율화 역량 심중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기반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제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영실천 ▲창의적·역동적인 조직 문화 형성 등이다.

업무 보고를 받은 성 이사장은 서울지역본부에서 추진 중인 민원서비스와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웹-EDI 시스템 개선 사업과 영신성 당뇨병 통합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창조적인 발상에 의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정·신뢰·상생 발전·창조 혁신 등 공단 3대 경영 방침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창조, 최소한의 재원을 투입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등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metro Nicaragua

ada de chinos hará que
versifique la producción

metro Ecuador

드론 농사법 을 아시나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에콰도르에 '드론 농사법'이 등장해 화제다. 13일(현지시간) 메트로 에콰도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부터 200만 달러(약 22억 원)를 투자해 개발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이 최근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열 감지 기능이 있는 멀티스펙트럼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농장 상공에 띄워 토질, 강수량, 습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은 정보를 통해 해당 농장에서 자라는 식물과 현재 조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작물의 발아, 개화, 결실 시기 등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콰도르 정부는 카리키, 친보라소, 과야스, 산토 도밍고 등에 드론 농사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metro Brazil

버스 실내 온도가 무려 54도

폭풍 시내버스에 대한 브라질 상파울루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3일 메트로 상파울루에 따르면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들 정도로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1만5000여대 시내버스 중 0.4%만 냉방시설을 갖춰 이용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로 오후 2시쯤 파울리스타 거리를 지나는 시내버스의 실내 온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54도였다. 대학생인 루카스 올리베라(21)는 "버스 요금이 3.5헤알(약 1400원)이나 되는데도 에어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에스피트린스는 "올해 말까지 1000여대의 버스에 냉방 장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metro HongKong

"경찰이 된 조폭"

영화 무간도 방불

최근 산시성에서 영화 '무간도'를 방불케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2002년도 양조위·유덕화 주연의 영화 '무간도'는 범죄조직원이 경찰학교에 들어가 조직의 스파이가 되는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다.

13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제비파는 2000년 산시성 중양현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두목 펑사오춘의 별명 '제비'에서 이름을 땄다. 2001년 펑사오춘은 장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원들의 경찰학교 입학을 권유했다. 성적이 좋았던 조직원 왕펑파이는 타이위안시 경찰학교 형사수사전공에 당당히 합격했고, 성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들은 이 조직과 결탁한 공안국 간부를 통해 합격했다. 이렇게 제비파 조직원 15명은 산시성을 비롯한 지역 경찰학교에 수사·지안 행정 등의 전공으로 합격했다.

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조직에서는 몇 차례 학교를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몇 년 뒤 조직원들은 공부를 마치고 중양현으로 돌아와 공안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됐고, 제비파의 다른 조직원이 참여한 범죄사건에 관여하게 됐다. 이들은 18차례나 제비파에 정보를 누설하고 조직원의 도주를 도왔다.

하지만 제비파의 스파이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4년 6월 산시성 공안청이 어느 살인 사건을 검거하다 제비파의 경찰 스파이 15명과 이들을 도와준 공안국 간부들을 체포한 것이다.

한편 경찰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들의 정체를 듣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경찰학교 학생은 조직원인 리펑에 대해 "그는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정리=윤정원기자

중남미 니카라과에도 중화 열풍

대륙 관통 대운하공사 홍콩 기업이 수주…5년간 55조원 투입

HKND(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 인프라 개발 그룹 산지자들이 니카라과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남미 국가인 니카라과에 '중국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건 대륙 관통 운하 공사를 중국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메트로 니카라과에 따르면 공사 기간 5년, 총 500억 달러(약 55조 원)를 투입하는 대륙 관통 운하 사업을 지난해 연말 시작했다. 이번 대운하 사업은 길이 277㎞, 폭 520m로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특히 인구 600만 남짓 크기의 면적에 GDP 110억 달러의 경제규모인 소국 니카라과에게는 국운이 달린 사업이기도 하다.

니카라과 국민들은 100여 년 전 파나마에 빼앗겼던 대륙 관통 운하 사업을 되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당시 니카라과는 대륙 관통 운하건설의 적임지로 손꼽혔으나 화산 폭발로 인해 사업권을 놓쳤던 아픈 경험을 지녔다.

이 때문에 니카라과는 "세기에 걸친 꿈이 실현된다"는 사업 슬로건을 내걸 정도다.

◆중국인 거주 8배 급증

니카라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사업권을 중국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HKND(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 인프라 개발 그룹이 따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니카라과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6000명 정도에 그쳤던 니카라과 내 중국인 숫자는 최근 5만여 명으로 급증했다.

대규모 중국인들의 유입은 니카라과의 농업 체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인들이 하루 쌀 37.5톤, 야채 25톤, 육류 12.5톤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주력이었던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신해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니카라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작물 범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는 농산물 수출도 노린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국은 니카라과에 부는 중국 바람을 좋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니카라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메트로 니카라과는 "이번 대륙 관통 운하에서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며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등 중남미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 바람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벨리하 사구르시아 리바스 기자
정리=이국명기자

정부, 미래성장 산업에 180조원 투입

핀테크·기술금융·모험자본 활성화 돕게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미래성장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경제 혁신을 위해 올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 M&A를 위한 특화 증권사를 만드는 등 모험자본 시장도 활성화한다.

◆성장부터 회수까지 단계별 지원

15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예년 합동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 올 한해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위주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 구축 ▲180조원 정책금융 공급 ▲'기술금융 3.0' 추진 ▲연대보증면제 확대와 재도전 진입 소싱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 ▲금융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 과제로 내놨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모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된다.

센터는 범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사업을 발굴하며 6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혁신펀드'가 조성된다.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위한 정책금융도 180조원 지원된다.

회수 단계를 위해선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V-CDS(신용부도스와프)'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벤처조합이나 창투조합 등에 출자하는 엔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월부터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중기와 벤처 M&A에 특화된 증권사도 육성되며 하이브리드 펀드 공모주 자동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도 검토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2부 시장'도 3월 중 본격 개시된다.

◆기술금융 핀테크 중소기업 육성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과 현장 확산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투자중심의 '기술금융 3.0'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를 만드는 한편 기술거래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정책금융기관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3만2000건으로 늘리고 신규자금도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 범위도 확대해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3월부터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도 면제될 전망이다.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최대 1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동시에 채무조정 확대와 신용정보 공유 최소화 등을 방향에 재창업지원 기관간 단계별 역할정립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ActiveX 제거와 과잉규제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도 2000억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국민銀, 4천억 돌려받아

국민은행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최종심 판결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국민은행은 4000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KB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회장의 명예회복과 함께 KB금융그룹의 올해 순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KB에 '겹경사'와 같은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가운데)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1월 기준금리 연 2%로 '동결'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0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1명 중 96.4%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 비율 98.2%보다는 근소하게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채권 전문가들은 "저물가와 경기회복 둔화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있어 1월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욱이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1분기 추가 인하 가능성

다만 올해 1분기 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채권팀장은 "이달 금통위를 앞두고 최근 확산된 정책 경제심리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주 시장은 정책 경계심보다 경기 의구심을 앞세우며 금리 수준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은 금통위가 올해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정도에 금리를 1.7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준금리 추가인하의 조건으로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 이하로 하향 조정 ▲물가 전망도 1% 중후반 수준으로 조정 ▲1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 개진 등을 꼽았다.

/김민지기자

market index <15일>

구분	지수	등락
코스피	1914.14	(+0.48)
코스닥	581.39	(+7.22)
금리	2.04	(+0.07)
환율	1076.90	(-2.60)

모바일 카드, 한번 써봐?"
하나카드는 15일 모바일결제 활성화를 위해 하나 모비일카드 오프라인 캐쉬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제공

"올해 성장 3.4%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1.9%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경기여건 변화를 고려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이처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3.4%는 지난해 10월 한은이 발표한 전망치나 최근 여타 기관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치가 낮아진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영향으로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상당폭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만 "4분기에 낮아진 수준이 금년 전체 연간 전망치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1% 내외의 성장률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회복세는 지난해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0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 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16)

보험개발원 "IFRS4 2단계 도입 TF 가동"

기본 시스템 구축에 450억 소요· 보험사 분담금 10억원 수준 될 듯

보험개발원이 2018년 도입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 2단계 준비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선두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보험업계에 적용하는 시스템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수봉(사진) 보험개발원 원장은 15일 여의도 아일랜드웨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IFRS4 2단계 도입은 사실상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팀 신설 외에도 계리, 리스크 팀에 직원 6~7명을 신규로 충원해 계리 리스크-IFRS팀이 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팀 담당 3~4명을 기준으로 총 20~30명으로 오는 2월부터 준비해 1분기 내에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들 팀은 보험개발원이 주축이 돼 각 보험사 직원이 파견형태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발원은 해당 시스템 구축에는 약 4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을 위한 각 보험사의 비용은 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발원은 각 회사별 계정상황이 다른 만큼 각 보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김 원장은 보험업계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올해부터 도입하고,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오는 3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통합연금포털이 활용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공·사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본인의 잠기 미거래 계좌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연금수령이 누락될 우려가 없다.

또 연금상품 취급 기관별로 적립금 규모 수준의 정보는 제공되지만 노후설계를 위한 예상 연금액 등의 중요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연금포털은 현재 80% 이상 완료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운영주체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최종 데이터 정리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9월 올해 주요사업으로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델 발굴 지원 확대 ▲통계분석서비스의 전문 고도화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현장 중심의 실무지원서비스 강화 ▲정보기술(IT)보안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에 IFRS4 2단계 도입을 지원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의무보험 상품개발과 CAT보험(거대 자연재해 예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KB금융, 핀테크기업 성장 지원"

KB금융그룹이 핀테크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KB인베스트먼트 내에 투자전담팀(5명)을 구성하고, 핀테크 관련 핵심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150억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결제송금서비스', '모바일 금융보안', '모바일 거래 및 인증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금융기술' 등 4대 주력 투자 분야를 선정, 해당 기업에 대해 지분 및 지식재산권 투자는 단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새롭게 신설한 기술금융 전담팀에서 핀테크업계에 대한 대출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전산시스템 테스트 플랫폼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mrc@

신한금융 회장 "해외진출 활성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5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h)와 기술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배당규모와 배당성향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배당이 낮은 편"이라며 "큰 그림에서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한해 주요 전략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행력 강화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금융 ▲미래설계 차별적 역량 강화 ▲글로벌 현지화 강화 및 진출 다양화 ▲고객중심 채널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적 비용절감 등을 6대 중점과제로 내놨다.

이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 회장은 특히 "고객관리와 대면채널을 최적화하고 프라이빗웰스매니지먼트(PWM) 등 금융복합점포 운영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핀테크 환경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카드·보험사 등과의 제휴를 통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기존의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어 있어 비슷한 것을 만들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은행·카드·보험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등 해외 유망시장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글로벌 현지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은행 글로벌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은 은퇴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미래설계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은퇴상품 라인업도 출시하는 동시에 일본 등 선진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영슬로건으로는 '실천하는 신한, 함께하는 성장'이 제시됐다.

/박이람기자 aiva2003@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5일 시각장애인에게 서울 문화 유산을 읽어주는 '착한 목소리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SC은행 제공

은행권, 점포 차별화 전략 "눈에 띄네"

주요 은행들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점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신복합점포 확대, 점포 통폐합 등을 통해 은행의 영업력 수익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은행과 증권 영업점 간의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NH농협금융은 지난 5일 국내 1호 복합점포인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를 세종로 광화문빌딩 10층에 개점했다. 이 센터에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입점해 고액 자산가와 법인고객 등을 대상으로 은행과 증권 서비스를 합친 종합금융자산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광화문 NH농협금융PLUS센터는 금융규제개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제1호 복합점포로서 기존 점포와 달리 은행과 증권 영업점 간 칸막이를 없앤 개방형 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센터를 방문한 고객은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은행과 증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 양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은행-증권 통합계좌 개설, 공동 우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복합점포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여의도 NH농협금융PLUS센터 등 최대 10여곳의 복합점포를 올해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에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 올해 조 점포 통폐합 작업이 다시 전개된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영업점이 정리되고, 대신 수익성이 기대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점포가 개설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통폐합 계획에 따라 지점 6개를 정리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영업망을 갖춘 농협은행도 올해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들어간다. 수도권과 지방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업점 34곳을 올해 조 폐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641개)과 우리은행(993개) 역시 소폭의 점포 감소가 예상된다.

/김현정기자 mrc@

널뛰는 정유화학주

유가 등락에 주가 출렁

최근 저유가 기조에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정유·화학주들의 주가가 부쩍 유가 등락에 민감해졌다.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유가가 반등할 기미를 보일 때마다 정유화학주들의 주가도 상승 기미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증시에서 국제 유가 급반등에 힘입어 정유화학주들이 대거 동반 강세를 보였다.

S-Oil이 이틀째 올라 5만원선을 회복했고 롯데케미칼(2.78%), KCC(1.90%), 금호석유(1.60%), 효성(1.03%) 등 대체로 화학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한동안 급락세를 잇던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의 긴장이 풀렸다. 14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6% 반등한 배럴당 48.48달러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하루 변동폭으로는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105달러선에서 거래되던 WTI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정유화학주들의 실적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두바이유 가격 역시 지난해 10월 93달러선에서 같은해 말 53 달러선으로 3개월 만에 40 달러가 떨어지면서 유가 급락세를 감바했다.

저유가 직단에 국내 정유 4사는 지난해 1~3분기에 본업인 정유사업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기간 정유부문에서 4060억원 적자를 냈고 GS칼텍스는 4016억원, S-Oil 392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현대오일뱅크가 1792억원으로 유일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정유부문의 적자 부담으로 지난 1977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낼 전망이다.

정유사들은 보유한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가보다 시장가가 낮을 경우 그만큼 지신가치가 감소해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유가 하락은 정유업체들의 적자 폭을 크게 늘리는 부담 요인이 된다.

우리 10년 이상 지금과 같은 저유가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향후 전망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증권가의 손도 바빠졌다.

원유 등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나 유가 하락에 따른 비용감소 효과가 바로 나오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로화물과 택배, 육상운송, 시멘트, 비금속광물, 여행, 비료, 제지 등이 수혜 업종으로 꼽혔고 개별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S-Oil, KCC 등에 관심이 쏠렸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불과 6개월 사이에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향후 유가의 의미있는 상승도 어려워보이므로 투자 전략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천안 불당 오스트애비뉴' 이달 분양

우미건설은 이달 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1-C 1-C2블록에서 '천안 불당 오스트애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평균 19.84대 1로 1순위 마감된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단지 내 상가다. 지상 1~2층, 연면적 1만7226㎡ 규모로, 전용면적 32~1485㎡의 총 67개 점포로 구성된다.

아파트 1152가구를 비롯해 주변에 1만300여 가구의 배후 수요가 있으며 4만㎡ 크기의 근린공원과도 연계돼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전망이다.

상가는 약 300m 길이의 스트리트몰 형태로 조성된다. 1층은 SSM, 키즈카페, 유럽풍 카페 등으로, 2층은 패밀리레스토랑, 식음료점, 외식업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상가 중 일부는 회사에서 보유하며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1순위 마감 아파트는 수요층이 두터워 단지 상가의 성장력도 높기 마련"이라며 "단지 옆 대형공원과 함께 특색있는 상권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천안 불당동 1413번지에 마련된다. 아파트와 같은 201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안국약품, 내리막 주가·추징금 악재

지난 한 해 내리막길을 걸은 안국약품의 주가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소식에 연초 주가 부담을 안았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안국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300원(2.37%) 내린 1만23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전날 세무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는 공시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냈다.

추징금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회사 관계자는 추징금 배경에 대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1~2013년 법인세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돼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의 주가는 지난해 9월 중순 1만7000원대까지 올랐다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같은 해 말에는 1만1000원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준 측면도 있다.

이 회사는 주가 자사주 매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기업은행과 체결한 1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내년 초까지 1년 연장한 상태다.

새해 들어 대체로 1만2000원을 오르내렸으나 이날 추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과 동시에 1만1900원선으로 내려갔다가 장중 낙폭을 다소 줄였다.

전날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 개발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국약품은 올해 비임상연구(GLP)를 완료하고 임상1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ETF 거래하고 선물받자" NH투자증권은 다음달 6일까지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합성-차이나A레버리지 또는 TIGER차이나A300을 매일 3만주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명에게 백화점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 제공

포스코건설, 하나은행 본점 신축공사 돌입

거대한 책을 쌓아놓은 듯한 북타워(Book Tower) 가림막과 울타리로 화제를 모았던 하나은행 본점건물 신축공사의 첫 단계인 지상층 철거공사가 오는 17일 마무리 된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지난해 9월 하나은행 본점 건물 철거에 돌입한지 약 3개월 만인 오는 17일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기존 20층 규모의 하나은행 본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은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빌딩들이 바로 인접한 곳에서 진행되는 고층 건물 철거공사인 만큼 안전상에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를 기울였다.

포스코건설은 인근을 고려해 도심지에 부적합한 폭파공법 대신 압쇄공법을 적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물 전체를 감싸는 철제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방지용 펜스와 비산먼지 방지용 워터커튼을 설치하는 등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리스크를 관리했다.

포스코건설은 지하층 철거와 톱다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공사기간 단축에 유리한 콤플렉스 톱다운(Complex Top-Down) 공법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기존 톱다운 공법에 비해 2개월가량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20층 규모의 대형 건축물 철거는 2009년 여의도 전경련회관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 고민하는 노후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간 하나은행 본점은 이번 공사를 통해 지하 6층, 지상 26층, 연면적 5만4038㎡ 규모의 업무시설로 2017년 6월 재탄생한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본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1151억원이다.

/박선옥기자

세월호 쌍둥이 '오하마나호' 헐값 낙찰

세월호 쌍둥이선으로 유명한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법원경매에 나와 4번의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에 3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헐값에 낙찰된 탓에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오하마나호를 비롯해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총170억6087만원을 청구 했다.

마지막 데모크라시5호는 3번의 유찰 끝에 지난 12월 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됐다.

/박선옥기자

삼성·LG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잇단 폭발

리튬이차전지 원인… 소비자와 사측, 정품 배터리 주장 달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에 이어 최근 LG전자도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곁에 두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폭발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준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해 10월 캐나다에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대학에 재학 중인 캐설리라는 학생이 사용 중인 삼성전자 갤럭시에이스2x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기는 사용 중은 아니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매트리스와 침구 일부가 화재로 인해 손상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삼성캐나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삼성은 해당 기기를 토론토사무실로 보내라고 답했다. 기계를 보낸 뒤 수주가 지나도록 답이 없어 다시 문의를 했더니 "기계를 한국으로 보내서 조사를 봐야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올린 피해 사진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로 인해 침대 매트리스가 훼손됐다. /CBC

삼성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고객의 갤럭시 에이스2x에 장착돼 있던 배터리가 삼성 정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리해주는 손님에겐 새 기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배터리는 처음 뜯지 않은 모바일 가판대에서 전화기를 구입했을 때부터 들어있던 것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폭스4 TV도 삼성전자 갤럭시S4 폭발 문제를 보도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도 정품이 아니라 교체품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캐설리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배터리 결함에서 발생한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LG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사건이 두달 여 만에 두 차례나 발생했다.

15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G3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버린 배터리는 부풀러지고 모서리에 구멍이 나는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번 배터리 화재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상태가 아닌 단독으로 있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는 해당 배터리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다. 리튬 배터리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할 경우 자연발화 할 수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양극과 음극의 물질이 만나 합선에 의해 불이 붙게 된다. 내부 과산화물의 산소와 가연성 유기전해질이 반응해 급격히 연소해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차전지는 완전체가 아니다. 세계 모든 제조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전했다.

/윤성웅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더 뉴 벨로스터' 시판

7단 변속기 적용, 우수 연비·강력 성능 실현

현대차 대표 '디자인과 혁신의 아이콘' 모델인 벨로스터가 더욱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주)는 세계최초로 '엔진사운드 이퀄라이저'를 적용하고, 2030세대의 젊은 감성과 스타일을 만족시킬 차세대 디자인과 신사양을 대거 보강해 상품성을 강화한 '더 뉴 벨로스터'를 16일부터 본격 시판한다고 밝혔다.

'더 뉴 벨로스터(사진)'의 '엔진사운드 이퀄라이저'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의 가상 엔진 사운드를 튜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행 모드별(다이나믹, 스포티, 익스트림) 엔진 음량과 저·중·고 음역대별 음색 가속페달 반응도를 정밀하게 세팅해 다양한 종류의 엔진음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 뉴 벨로스터'는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의 파라미터 처리 단위 등 개선해 주행감을 높였다. 차량 전복 시 에어백을 작동시켜 전복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상해를 최소화시키는 '롤오버 센서(Rollover Sensor)' 적용으로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블루링크 2.0을 탑재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1.6 터보 GDI엔진을 탑재한 주력 모델인 디스펙 차급에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7단 더블클러치트랜스미션(DCT)을 맞물려 복합연비가 기존 모델보다 4% 개선된 12.3㎞/ℓ를 나타낸다. 이 모델에는 또 금속 색감의 라이에이터 그릴 테두리를 새롭게 적용하고, 아날로그 감성의 계기판 등을 추가해 역동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젊은층이 색상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도록 외장 색상으로 다즐링 블루, 커피빈, 미스티베이지 색상을 추가하고, 디스펙 모델에는 무광 외장색상 2종도 새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좌석벨트에도 독특한 색감을 추가 적용했다.

가격은 주력 모델인 디스펙의 경우 90만원 인상된 237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규 사양이 많이 추가되고, 성능과 디자인이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인상폭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현대차측은 설명했다. 나머지 하위 모델은 1995만~215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왼쪽부터) 크레이그 타일러(Craig Tiley) 호주오픈 조직위원회 CEO와 기아차 글로벌홍보대사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선수, 데이먼 메러디스(Damien Meredith) 기아차 호주판매법인 COO가 '대회 공식차량 107대 전달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차, '2015 호주오픈 테니스' 공식 후원

호주오픈 메이저 스폰서인 기아자가 올해 첫 그랜드 슬램 대회인 '2015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개막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본격 실시한다.

기아자동차(주)는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자와 호주오픈 관계자, 기아자 글로벌홍보대사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아 엑스카(Kia X Car)' 차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대회 공식차량 107대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는 대회 기간에(19일~2월 1일) 각국 참가 선수단과 VIP, 대회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K5, 쏘울, 쏘렌토, 카니발 등 총 107대의 대회 공식차량을 제공한다.

이 날 기아차는 사전SNS캠페인과 온라인 바이럴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9n4HEVQBk)을 통해 이미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기아 엑스카' 실제 차량을 선보였다.

'기아 엑스카'는 올 뉴 쏘렌토에 엑스맨 테마를 적용한 것으로, 엑스맨 캐릭터 '울버린'의 상징과 X 로고를 차량 곳곳에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다양한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을 포함한 전세계 호주오픈 팬들이 본인의 응원 사진과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http://bit.ly/KiaGreatestFan)과 웹사이트(http://kiagreatestfan.com)에 업로드 할 경우, 최고의 팬을 선정해 고급 캠코더를 제공하는 '기아 그레이티스트 팬(Kia Greatest Fan)'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56명의 기아차 고객들을 초청해 호주오픈 경기 관람과 멜버른 현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럭키 드라이브 투 오스트레일리아(Kia Lucky Drive to Australia)' 프로그램, ▲기아 차량에 탑승한 호주오픈 참가 주요 선수 및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제공하는 '오픈 드라이브(The Open Drive)' 등이다.

또한 ▲경기장 A보드와 전광판 광고 ▲국내에서 선발된 유소년 20명이 참가하는 호주오픈 볼키즈 프로그램 운영 ▲기아차 홍보 부스 운영·차량 전시 등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전세계에 기아차 브랜드를 더욱 알릴 계획이다. /김희준 기자

진짜 '창조경제'가 시작되는 곳, '데모데이'

스타트업 발굴 아이디어 찾기 행사

'창조경제'를 위한 정부의 투자 규모는 점점 늘고 있다. 창업분야가 대표적이다.

15일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2013년 1217억원, 2014년 1305억이었으며, 2015년엔 1333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3500만원에서 5000만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은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스타트업들 사이에선 "진짜 창업을 시작하려면 '데모데이'를 찾으라"는 말이 나온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액셀러레이터' 들이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벌이는 행사다.

본래 실리콘밸리의 액셀러레이터 기업 'Y콤비네이터'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명칭이었지만 현재는 스타트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행사를 일컫는 일반명사로 쓰인다.

데모데이에 참석한 벤처캐피탈리스트(VC)들은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청년 창업가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이유다.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회사 '스파크랩'은 2011년부터 매년 데모데이를 연다. 현재까지 참여한 업체는 모두 32개로 대부분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벤처1세대를 중심으로 만든 액셀러레이터 회사 '프라이머'의 데모데이도 인기다. 2014년에 참가신청한 업체만해도 150여개가 넘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데모데이가 성황인데는 이유가 있다. 창업진흥원은 지원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자금 활용계획서 등 각종 문서를 원한다.

복잡한 문서 작업 때문에 사업이 2~3개월 늦어지면 초기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청년창업가 이승원(30)씨는 "제대로 창업하기 위해선 정부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정부 지원금은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

2년 전 창업한 모바일 솔루션 업체 '엔빗'의 이주형(30) 이사는 데모데이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케이스다. 정부의 창업 투자금와 VC를 통한 투자금 모두 받은 경험이 있다.

이씨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느꼈던 가장 큰 부담은 투자금이 구조화돼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50% 이내, 마케팅비 30% 이내, 외주용역비 20% 수준으로 써야 한다.

디자이너, 개발자 등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면 굳이 외주를 맡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돈은 '써야만' 하는 항목이라 최소 15%이상은 사용해야 한다. 외주용역비의 금액이 너무 작아지면 다른 부분의 지원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 몇몇 스타트업은 억지로 외부용역을 맡기기도 한다.

이에 비해 데모데이를 통해 성사된 투자는 자금활용이 자유롭다. 투자자 대부분이 1세대 벤처기업자인 덕분에 창업환경에 밝다.

투자금뿐만 아니라 운영전략 짜는 일과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도움을 준다.

뷰티 어플리케이션 '언니의 파우치' 전지훈(30) 대표는 "창업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현실적인 조언"이라며 "정부 지원과정에서 VC와 만날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프라이머 데모데이에서 스타트업 대표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다. /프라이머 제공

2015년 현대중공업그룹 통합협의회 신년회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가운데)이 15일 호텔현대경주에서 열린 협력회사와의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권오갑 사장 "협력사 경쟁력" 당부

현대중공업그룹은 15일 호텔현대경주에서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310여개 협력회사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신년회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사장, 김근복 통합협의회 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장은 "원가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생산현장 구축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며 "진취적인 기상과 협력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협력사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주영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굴의 의지로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던 유지를 이어 모기업과 협력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2015년 한 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정필기자

늘어나는 셀프주유소 서러운 장애인들

운전자들이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와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승하차가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는 이 과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대오일뱅크 제공

전국 1700여곳 대부분 배려 없어

"여기 셀프예요!"

최근에 집 근처 셀프주유소를 찾은 소아마비 1급 장애인 김용수(50)씨는 결국 차를 돌렸다.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

15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14개였던 셀프주유소는 11월 1752개로 늘었다. 10개월 만에 200개가 넘는 셀프주유소가 생긴 셈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역시 셀프 서비스 영업장을 늘릴 예정이다.

종업원이 없는 주유소에서 장애인들은 곤혹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해든 의 류택규(51) 본부장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차에서 내려 셀프주유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상"이라며 "다른 고객의 눈치가 보여 결국 셀프주유소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상주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다면 다행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셀프주유소에선 밤 시간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정이 넘은 시간엔 직원이 없다는 안내문까지 버젓이 붙어놓았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이 상주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류 본부장은 "'셀프서비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은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셀프주유소 직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용 도움 요청 벨 설치, 장애인 편의지원 주유소 안내표시 설치, 장애인 도움지원 주유기 표시,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현수기자 hcs335@metroseoul.co.kr

'G3' 흥행 'LG G플렉스2' 이을까?

4배 빠른 LTE 지원 이통3사 모두 유통

지난해 'G3' 흥행으로 자신감을 얻은 LG전자가 'LG G플렉스2'(사진)로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G3'가 스마트폰 최초 쿼드HD(QHD) 장착으로 차별화한 디스플레이와 자동 초점 기능을 고도화시킨 카메라로 호응을 얻었다면 'LG G플렉스2'는 빠른 속도가 핵심이다.

LG전자는 오는 30일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하는 곡면 스마트폰 'LG G플렉스2'를 국내 시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CES에서 처음 선보인 스마트폰이다. 국내 미디어 데이는 22일 개최 예정이다.

4배 빠른 LTE를 지원하는 LG전자의 첫 제품이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10을 장착했다. 운영체제(OS)는 안드로이드 5.0버전(롤리팝)이다.

5.5인치 고화질(풀HD 1080*1920) 화면은 곡률 700R을 적용했다. 뒷면 곡률은 650R이다. 곡률 차이는 손에 잡는 느낌과 화면 몰입감 최적화를 위해서라는 것이 LG전자의 설명이다.

카메라는 전면 210만화소, 후면 1300만화소다. 'LG G플렉스2'는 통신 3사가 모두 유통한다. 출고가는 미정이다.

한편 'LG G플렉스2'는 'CES 2015'에서 '리뷰드닷컴'을 비롯한 IT전문매체들로부터 최고 제품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주요 외신들은 "아름답고 강력하면서도 우아한 G 플렉스2에 시선을 떼지 말 것(Reviewed.com)" "최고의 제품을 찾는 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Digital Trends)" "작아진 크기, 개선된 카메라, 풀HD 화면과 롤리팝 운영체제 등 G 플렉스2의 모든 것이 선정 요소가 된다(Tech Radar)" 등의 호평을 보냈다.

/정은미기자

KT-SPC 개방형 기가비콘 시범사업 MOU KT는 15일 식품전문기업인 SPC그룹과 자사의 기가 비콘 인프라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콘은 50m 범위에서 이용자와 스마트폰과 통신하며 할인쿠폰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KT 제공

LG전자 '90도' 온정수기 출시

LG전자는 15일 온수 기능을 넣고 편의성을 강화한 직수형 온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LG 온정수기는 직수형 정수기에 1ℓ 용량의 '스테인리스 진공 온수탱크'를 추가해 약 90℃의 온수를 제공한다.

진공 온수탱크는 열 손실을 최소화해 일반 온수탱크 대비 전력소모를 절반 가량 줄여준다. 또 물때 생성을 억제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다.

이 제품은 직수형 정수기의 장점도 유지했다. 저수조가 없어 이물질 생성을 차단하고 용량 제한 없이 상온의 정수를 제공한다.

온정수기는 위생뿐 아니라 편의성도 대폭 강화됐다. 120·500·1000mℓ 등 용량별 정량 출수 기능을 적용했다.

렌탈료는 초기 비용부담 없이 월 2만1900원(5년 기준)이다. /박선옥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초격차 굳힌다

20나노 8Gb D램 풀 라인업 구축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0나노 8Gb D램 풀 라인업 구축하면서 다시 한 번 초격차 기술력을 과시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 8기가비트(Gb) GDDR5(Graphics Double Data Rate 5) 그래픽 D램 양산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래픽 D램이란 동영상, 그래픽 데이터 처리에 특화돼 일반 D램보다 수 배 이상 빠르게 동작하는 메모리를 말한다. 최근 3D 게임과 초고화질 콘텐츠의 사용이 늘면서 대용량, 고성능 그래픽 D램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속도 7Gb/s의 4Gb GDDR5 D램을 넘어서 업계 최대 용량인 8Gb와 최고 속도인 8Gb/s를 최초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8Gb가 1기가바이트(GB)이기 때문에 이번 그래픽 D램 8개 칩만으로 게임 콘솔 최대 용량인 8GB의 D램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일반 노트북에 8Gb 칩 2개로 2GB 그래픽 메모리를 구성하면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른 만큼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소비전력을 낮출 수 있다. 칩의 실장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 더 슬림한 노트북 디자인이 가능하다.

일반 D램(1866Mb/s)보다 4배 이상 빠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2개의 칩으로 각각 32개의 정보출입구(I/O)를 통해 초당 64GB(풀HD급 DVD 12장)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를 통해 초고화질(UHD) 콘텐츠를 더욱 부드럽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그래픽 D램 공급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양산 중인 20나노 8Gb D램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해 서버·모바일 등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 올해는 그래픽 시장은 물론 노트북 등 보급형 IT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주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부사장은 "향후 20나노 D램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고객 수요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IT업계, O2O 시장 선점 전력투구

온라인 할인쿠폰으로 오프라인 유도

이동통신사와 포털업계 등 정보통신(IT)업계가 O2O(Online to Offline)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O2O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이나 위치기반(LBS) 기술을 활용해 오프라인 매장 주변의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발송, 잠재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각계 IT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며 O2O 사업 선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T전화'에 적용된 'T114' 기능을 통해 오프라인 상점 연락처 검색을 지원한다. 내가 찾고자 하는 상점의 위치정보와 전화번호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SK플래닛은 '시럽'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6월 이후 O2O 시장 진출에 나선 상황이다. 스마트폰에 시럽을 내려받은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면 각 매장에 설치된 저전력블루투스(BLE) 비콘이 소비자의 스마트폰으로 해당 매장의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쿠폰, 무료제공 쿠폰 외에도 매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 등 알뜰한 쇼핑을 위한 혜택들을 빼놓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O2O 시장 진출을 위해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LG유플러스가 티몬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이통사의 서비스 경쟁이 모바일 플랫폼 및 쇼핑, 커머스 등 O2O 분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KT역시 계열사인 KTH를 통해 T커머스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들도 택시서비스를 통해 O2O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이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은 최근 모바일 결제서비스 라인페이와 연동되는 라인택시를 일본에서 출시했다. 라인택시 서비스는 별도의 앱 없이도 손쉽게 택시를 배차받고, 라인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국내 시장을 겨냥해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택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카카오는 1분기 내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서비스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향후 시장 전망이 밝아 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기자 ly485@metroseoul.co.kr

출 선 예비 창업자들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제35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5'에서 참가자들이 업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브랜드 홍보와 가맹점 확장의 기회를 주고 창업 희망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17일까지. /연합뉴스

효성 임원인사, 36명 승진

효성은 15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부사장 2명 등 총 36명을 승진 발령했다.

올해 인사에서 조현준 섬유PG장 겸 전략본부장(사장)과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 등 오너가 승진은 없었다.

사측에 따르면 2010~2013년 스판덱스PU장으로 재임하며 스판덱스의 실적 향상을 이끈 황윤언 중국 스판덱스 총괄은 부사장으로 승진됐다.

베트남 및 중국 내 증설을 주도하면서 세계 1위의 위상을 굳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홍 구매총괄은 효성의 주력 사업부인 섬유, 산업자재, 화학 부문의 구매를 총괄하면서 성과 향상에 기여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임원은 5명, 상무보에서 상무는 13명, 신규 상무보 승진자는 16명이 나왔다.

다음은 이번 정기인사 내용이다.

<승진>

부사장

▲구매 총괄 조홍 ▲전략본부 중국 스판덱스 총괄 황윤언

전무

▲섬유PG 스판덱스PU 박병산 ▲산업자재PG 인테리어PU 김수한 ▲중공업PG 전력PU 안성훈 ▲중공업PG 전력PU 김인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임진설

상무

▲섬유PG 스판덱스PU 김운선 ▲섬유PG 직물/염색PU 성효경 ▲산업자재PG 타이어보강재PU 김한현 ▲화학PG 필름PU 김종희 ▲화학PG Neochem PU 박유철 ▲건설PG 건설PU 한상태 ▲무역PG 화학PU 박상열 ▲효성캐피탈 정세종 ▲전략본부 전기종 ▲전략본부 베트남법인 최송주 ▲전략본부 남통효성변압기유한공사 김도균 ▲전략본부 북경지사 이기동 ▲더클래스효성 김호규

상무보

▲산업자재PG 인테리어PU 임정철 ▲화학PG PP/DH PU 김현태 ▲화학PG 김찬수 ▲화학PG 백윤호 ▲중공업PG 전력PU 김채범 ▲효성굿스프링스 장계관 ▲무역PG 화학PU 이연인 ▲노틸러스효성 권상환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양천봉 ▲전략본부 가흥화섬법인 조병걱 ▲전략본부 가흥화섬법인 오웅조 ▲전략본부 가흥화섬법인 심상률 ▲전략본부 주해법인 이상근 ▲전략본부 주해법인 이재우 ▲전략본부 상해지사 김식기 ▲효성기술원 강연수

구자열 LS 회장, 신입사원들과 연탄배달 봉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원 기탁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새해 첫 경영활동으로 신입사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구 회장과 신입사원 150여 명은 15일 오전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이 있는 경기 안성시 양성면의 장애인시설 혜성원을 찾아 방한복 500여 벌을 전달했다.

또 오후에는 안성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외된 이웃에게 약 5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 "LS파트너십에 기반한 상생경영을 펼쳐 더 신뢰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경영방침을 밝힌 바 있다.

LS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별 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전했다.

LS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 50여 명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베트남 하노이·호치민에 파견해 현지 어린이들의 과학실습과 문화체험을 돕는 LS드림스쿨 3·4호 준공식을 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안성시에 위치한 혜성원을 방문해 방한복을 입혀주고 있다. /사진=LS그룹

삼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28개 사업에 3억7천만원

삼성전자와 삼성복지재단은 15일 서울 태평로 삼성어린이교육문화센터에서 전국 28개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경기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래 설계 프로그램 'Future Planning 미리미리' ▲서울 영등포 보현의 집이 운영하는 자립형 노숙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숙인 지원봉사단 운영사업 '편견을 깨는 노숙인 36.5도의 실천' 등 총 28개다. 삼성은 선정 단체에게는 총 3억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경기도 부천시 춘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진로준비를 위해 지역 특성(만화·영상 복지·공연기획) 자원을 적극 활용하게 도왔다. /장혜은기자 hyun@

SK플래닛 날씨앱 '웨더퐁' 업데이트

SK플래닛의 국저 기상정보 플랫폼 '웨더플래닛'은 모바일 날씨앱 '웨더퐁(Weather Pong) 5.0버전'을 15일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날씨앱 웨더퐁은 8종류의 날씨위젯과 크기에 따라 시계·현재날씨·시간별예보·주중예보·예보문구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예보문구 영역은 주기예 미세먼지·황사가 나쁠 때나 기상특보가 있을 때 위젯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화면과 투명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현재 위치만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웨더퐁의 메인화면은 기존 '퐁' 캐릭터가 날씨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고도화돼 사용자 재미를 더했다. 이울러 하루의 날씨예보를 세분화된 문구로 전달해 차별화된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웨더퐁의 날씨정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1000여 곳에 설치한 자체 기상관측망 정보와 전국 단위 기상청 자료를 통합해 보다 정확한 날씨와 예보를 안내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미세먼지와 자외선정보도 함께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이유진기자 ly0413@

머니보스게임즈의 '위대한 수령' 게임의 한 장면

대한항공 사건을 풍자한 게임 '땅콩전쟁'

'게임판 샤를리 에브도' 아시나요?

위대한 수령·땅콩 회항·과자 과대포장 사회풍자물 게임 봇물…독설 쾌감 가득

'나도 샤를리 에브도다'. 게임업계에서 풍자성 강한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만화로 이슬람을 풍자해 화제를 모은 것처럼 게임업계도 시사성있는 작품으로 주목받는 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게임 기업 머니보스게임즈는 북한 김정은을 소재로 한 비디오게임 '위대한 수령(Glorious Leader)'의 정식 발매일을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주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2D 복고풍으로 나온 이 게임은 지난해 5월 첫 시안이 공개된 이후 끊임없는 화제를 낳았다. 게임에서 김정은은 주요 캐릭터로 나오며 미군 탱크에 맞서 싸우거나 유니콘을 탄 채 사격 솜씨를 발휘한다. 방북한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친구 캐릭터로 등장한다.

현재 머니보스게임즈는 투자 자금 부족과 해킹 위협 등으로 '위대한 수령'의 정식 서비스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머니보스게임즈는 소니 픽처스의 북한 풍자 영화 '인터뷰' 흥행에 힘입어 이 게임 출시에 탄력을 받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펀딩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잇따른 해킹 위협 속에 지난 11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모은 자금은 1만6816달러로 출시 자금 5만5000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

머니보스게임즈 측은 "재정적 문제와 사이버 테러 위협 등으로 게임 출시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게임을 기다린 후원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부조리를 꼬집는 게임이 새해부터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 '땅콩전쟁'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풍자한다. 이 게임은 땅콩그룹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 점령을 위해 재벌 3세들과 대결한다는 줄거리를 지닌다. 땅콩 아이템을 획득하면 힘이 세지며 빌딩을 올라갈수록 재벌 3세들의 공격력은 강해진다. 주인공 캐릭터 이름은 '장녀', '장남' 등으로 대한항공 오너 가족을 연상하게 한다. 이들은 '너의 연봉은 나의 하루 일급' 이란 독설 공격도 퍼붓는다.

이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개발사 아이봉크리에이티브 측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재벌이 많은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사회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과자 과대포장을 비꼬는 게임 '대포장시대'도 눈길을 끌었다. 과자 품질보다는 포장지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판매액이 올라간다는 설정은 국내 제과업계의 과대포장 행태를 꼬집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오렌지 카라멜' 만나볼까

오스트 크로니클' 예약 이벤트

에프엘모바일코리아의 모바일 MMORPG '오스트 크로니클'이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이 게임은 광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그래픽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앱스토어에 먼저 선보이겠으며 이달말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에프엘모바일코리아는 '오스트 크로니클' 홍보모델로 아이돌 그룹 '오렌지 카라멜'의 인기 멤버 나나를 발탁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스트 크로니클'은 사전 예약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한다. 미션 이벤트에 추가로 참가하는 이용자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에프엘모바일코리아 박병찬PM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과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MMORPG '검은사막' 점령전 17일 시작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검은사막'이 대규모 점령전을 예고했다.

다음게임은 MMORPG '검은사막'의 대규모 점령전을 17일 케플란 서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서버에서는 24일 오후 8시부터 점령전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령전은 검은사막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트로 꼽히는 대규모 전투 시스템이다. 길드들이 치열한 전투로 각 영지를 점령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점령전은 발레노스, 세렌디아 지역에 열리는 성채전과 칼페온에서 펼쳐지는 공성전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 100명이 가담한 길드들이 규합해 벌이는 대규모 전투로 논타게팅 액션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다고 다음게임측은 설명했다.

검은사막 프리미엄 PC방에서 즐길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됐다. 기존 PC방에서 검은사막을 즐기면 전투 경험치가 10% 추가된다. 이동속도, 공격력과 행운 잠재력도 각각 +1 상향된다.

한편 검은사막은 'R2', 'C9' 등을 만들어냈던 김대일 프로듀서가 설립한 펄어비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신작 MMORPG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이디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이용자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이국현기자 kelog@

정치·연예인도 '겜밍아웃'

게임인재단 캠페인 폭발 반응

게임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외치는 공연 캠페인 '나도 게임인 입니다-겜밍아웃'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게임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치인, 유명 연예인까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게임인재단에 따르면 김광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DJ DOC 김창렬, 배우 김수로, 한국화가 김현정 등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 게임 전문 채널 온게임넷의 MC 이준, 해설위원 온상민도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게임인재단이 지난 6일부터 게임산업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게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도 게임인 입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하고 '나도 게임인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행사 1주일여 만에 캠페인 영상 조회수가 25만건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좋아요'와 추천횟수 1500건, 댓글 1만건도 훌쩍 넘었다.

'나도 게임인 입니다!-문화인권(http://youtu.be/8lLKqStekaU)' 영상을 감상한 후 공감의 뜻으로 자신의 SNS에 영상을 공유하고 '나도 게임인 입니다'란 글을 남기면 누구나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다. /이국현기자

장거리 자동차용품 판매 급증

옥션, 설 역귀성 증가로 지방판매 비중 높아져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몰에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자동차 용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귀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 판매 비중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15일 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1/1~13) 내비게이션(60%), 블랙박스(15%), 하이패스(15%), 타이어·휠(50%) 등 장거리 자동차 용품 판매가 늘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설을 앞두고 있어 관련 상품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설을 앞둔 1월 한달 간 내비게이션 판매량이 30% 증가하고 블랙박스 판매가 340%나 뛰었다.

지역별 판매 자료를 보면 지방 판매 비중이 지난해 보다 5% 증가한 57.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수도권(42.6%) 비중을 앞섰다.

최근 역귀성이 증가 추세인데다 설 연휴가 최대 5일이나 돼 지방 구매 고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이 업계는 분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역귀성 비율은 13.8%로 10년 전 대비 5.2% 늘었다.

여전히 경기(20%), 서울(16%)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그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부산 지역(10%)과 경남(9%)의 비중이 각각 3%, 2% 늘어났으며 광주, 전남 지역의 판매량은 지난해 보다 각각 35%, 46% 급증했다.

김문기 옥션 자동차팀장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안전운전 필수상품으로 명절 한달 전부터 판매량이 늘어난다"며 "역귀성이 늘어나면서 전국망을 갖춘 장착점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겨울철 정비가 필요한 배터리, 타이어, 참숯필터 등 기본 용품도 저렴한 가격에 내놨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2015@metroseoul.co.kr

'보그' 3500원, '카멜' 4000원

JTI·BAT 등 외산 담뱃값 일제히 인상

15일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 코리아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 등에 담뱃세 인상에 따라 변동된 가격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담배의 가격이 인상됐다.

BAT코리아는 지난 1월 가격 인상 신고를 마친 초슬림 담배 '보그 시리즈'를 3500원에 판매한다. 이 가격은 예전보다 1200원 오른 것으로 4500원 정도에 팔리는 국산 담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가격을 4500원으로 결정했다. 1500원 오른 카멜은 시중에서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업계 2위인 한국 필립모리스는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해 1일부터 말보로와 팔리아멘트 가격을 4700원에서 2000원 내린 4500원에 내놨다.

/유아정기자 [illegible]

티몬 '스파 워터파크' 매출 크게 늘어

● 겨울 레저활동으로 스키보다 스파에서의 휴식이 선호되고 있다.

티켓몬스터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은 최근 3년간 10~12월 겨울철 레저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스키리프트권은 65% 증가한 것에 반해 스파·워터파크 매출은 141% 가량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2년전만 해도 티몬에서 두 상품군의 매출규모는 서로 비슷했으나 지난해 스파가 스키관련 매출의 2배를 넘어섰다.

티몬에서 1인당 스키리프트권 구매 단가 평균이 4만원대인데 반해 스파 이용권 구매 평균 금액은 1만4000원으로 두 상품 가격 차이가 2.5배 이상 났다. 추운 날씨도 스파 상품 인기에 한몫 했다.

한편 티몬에서는 실내풀과 파도풀, 어드벤처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캐리비안베이 종일권이 52% 할인된 1만6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팔도, 출시 25주년 '왕뚜껑' 선보여

● 팔도가 출시 25주년을 맞은 용기라면 왕뚜껑(사진)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수선 면발이 굵어졌고 국물도 진해졌다. 특히 짬뽕 왕뚜껑의 경우 매운짬뽕 분말을 넣어 중국식 짬뽕의 풍미를 살렸다. 나트륨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제품 패키지에는 25주년을 알리는 엠블렘을 넣었다.

팔도 측은 앞으로 배우 최민수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 "설 선물, 1인 가구·실속이 대세"

나홀로 가구 라이프스타일 반영 "무료배송·1만원 이하 상품도 출시"

편의점 업계가 설을 한 달가량 앞두고 선물세트를 출시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업태 특성을 반영해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최근 수요가 높아진 실속형 상품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싱글족의 식사, 여가생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상품으로 특화 전략을 펼친다. 유기농·천연 조미료로 구성된 '미니조미료 18종세트'를 비롯해 향초 브랜드 양키캔들(사진)의 캔들 세트 등을 판매한다.

CU는 소(小)가족도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소한 행복' 제수용 사과배 세트' 등 제수용 상품을 소포장했다.

이 외에 미니스톱은 소형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층이 다른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과 상품 구색을 차별화하고 주력 소비자층의 선호를 고려해 싱글족을 위한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불황에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1만원 이하 상품, 무료 배송 상품을 출시하는 반면 가격을 낮추는 편의점도 있다.

GS25는 준비한 580종 중 78%를 무료 배송 상품으로 구성했다. 이 편의점은 매년 무료 배송 상품 매출이 25%씩 증가하며 해당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난해 추석 때 8만8000원이었던 GS 배세트 2호를 5만8000원에, 7만3000원이었던 사과세트 2호를 4만8000원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고급유 6호, '애경 2080어드밴스 치약세트', 삭스탑 남성 정장 2족 등 실속 상품을 1만원 이하로 구성했다. /[illegible]

쌀쌀한 날씨엔 초콜릿~

나뚜루팝, '초코초코축' 등 판매 급증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은 10~12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초콜릿 제품의 판매량이 7~9월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나뚜루팝 관계자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열량을 소비하게 되는데 초콜릿은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이라 많이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뚜루팝의 초콜릿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초코초코축이다. 진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달콤한 초콜릿칩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새롭게 선보인 '햇초코라떼 2종'과 초코를 사랑한 롤로케익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illegible]

"도시형 노화를 막아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보호… '안티폴루션' 화장품 각광

최근 미세먼지, 자외선 등 복합적인 도시환경이 피부 노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는 '도시형 노화'에 주목,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개선하는 신개념 '안티 폴루션(Anti-pollution)'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로레알코리아 관계자는 "도시형 노화란 환경 오염, 기후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급격히 피부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유해한 도시 환경 중 가장 골칫거리는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피부에 한번 흡착되면 손 세안만으로는 제거하기 힘들다.

랑콤이 선보인 '시티 미라클 CC 크림'은 대기 중 오염 물질이 피부에 달라 붙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 해독과 피부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아데노신을 함유해 잦은 흡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칙칙함과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슈에무라의 '포어피니스트 프레쉬 클렌징 오일'은 간단한 세안만으로 씻어내기 힘든 미세 오염물질을 말끔히 없애준다. 클렌징 효과뿐 아니라 피부결 개선 기능으로 스킨케어 효과까지 제공하고, 진한 메이크업까지 손 쉽게 지울 수 있어 바쁜 직장 여성들에게 인기다.

아이오페는 지난 10년간 안티에이징 연구를 통해 도시형 노화가 현대 여성 노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어반 에지징 코렉터' 에센스를 출시했다.

핵심 바이오 성분인 '바이오 리노3'가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완화시킨다는 게 아이오페 측의 설명이다.

베라는 노화로 처진 모공이 서로 이어져 주름처럼 보이는 '모공주름'에 주목하고 조기 노화의 신호탄인 모공 처짐을 막고 표정선과 윤곽선을 잡아 탄력을 회복시키는 '모니파이어'를 선보여 인기몰이 중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에어 스타일링 페스티벌 1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헤어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1일까지 염색제, 샴푸, 에센스 등 헤어용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헤어 스타일링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롯데마트 제공

'디자인'에 빠진 생활용품·식음료

디자이너와 협업, 감성 담은 제품으로 소비자 공략

생활용품·식음료업계가 '디자인'에 빠졌다. 주로 패션, 뷰티업계들이 진행해온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것. 화려한 색상과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필품과 식음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애경 2080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디자인 칫솔은 2개월간 약 10만개가 팔렸다.

유명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이 칫솔은 머릿부분을 좌우 비대칭으로 만들어 어금니 뒤쪽까지 잘 닦을 수 있도록 했고, 주황·초록색 등 경쾌한 색상을 적용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비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지난해 12월 판매한 2080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치약도 4주간 4만개 판매수량 모두 동이 났다"고 설명했다.

식음료 업계도 디자인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영국 디자이너 산드라 이삭슨과 함께해 용기 디자인을 개편한 '7even'은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이 21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커피 전문점들은 개성있는 감성을 담은 디자인 '컵 마케팅'이 활발하다. 깜찍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종이컵에 예술작품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지난해 프랑스 그래픽 아티스트 '말리카 파브르'와 손 잡고 아트 컵 홀더를 선보였다.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을 모던하게 표현한 말리카 파브르의 그래픽 작품을 종이컵에 적용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뷰티, 패션을 넘어 생필품·식음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자인 협업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노르망디 풍경 담은 '파우치 미니가방'

청운동 카페 블레부기 운영한 '블리부는 고양이'는 인상과 고향 노르망디 전시회를 기념해 작품을 활용한 핸드메이드 아트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전시회는 노르망디를 사랑한 화가 모네와 부댕, 쿠르베와 코로, 터너 그리고 라울 뒤피까지 모던아트의 거장들이 그린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에서 열리며 모던 아트 거장이 그린 노르망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풍경화 전시로 서양미술사의 가장 빛나는 모던아트를 엿볼 수 있다.

/청운동 카페 블레부 제공

아트상품은 면과 블랭킷, 다용도 멀티 파우치, 미니가방 등 다양한 상품으로 제작됐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폐경기 여성 복부비만 조심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교수 "규칙적 운동 필요"

폐경 이후의 중년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르몬 변화가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정경아(사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서 폐경 후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보통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 1년이 지나야 폐경이라고 진단한다. 또 그 이전에 생리주기의 규칙성이 사라지는 시기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는 '폐경이행기'라 한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난소의 배란과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안면 홍조나 발한, 불안증과 우울증 등의 신체·정서적 증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폐경 여성의 80% 이상이 안면 홍조와 수면 장애, 우울증 등 폐경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20~30%는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복부비만이다. 허리의 둘레와 둘레비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폐경 전 단계는 32.1%, 폐경 후에는 44.5%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것이 다시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비만이 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폐경 후 비만은 단일 질환으로 끝나지 않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일과 채소 등을 자주 섭취하고 비만과 골밀도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뉴스&뉴스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 中 쇼핑몰서 대상

●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T몰이 주최한 '골든 뷰티 어워즈' 크림 부문에서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사진)이 최고상인 골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2009년 7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이 6600만개에 달하며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엑소(EXO)가 모델로 활동하면서 빠르게 인지도가 오르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SK-II, 에센스 함유된 '극광 CC크림' 출시

● SK-II는 다음 달 1일 '오라액티베이터 CC크림'(사진)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SK-II의 화이트닝 에센스 성분이 40% 함유돼 스킨케어 효과와 동시에 고급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CC크림이다.

특히 '데이 소프트 오라 콤플렉스'는 피부 본연의 자연스러운 피부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컨트롤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이트닝 효과를 제공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영국항공 제공

쇼핑천국 '런던'을 소개합니다

영국항공, 인기있는 다양한 테마 추천

전 세계 경제 허브 중 하나인 영국 런던은 세계 최대의 쇼핑 중심지이기도 하다. 엄청난 쇼핑 스팟 중 어디로 갈지 고민이 될 정도다. 이에 영국항공이 영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 스팟을 추천했다.

먼저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는 300개 이상의 상점과 디자이너 아울렛이 있어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메인 도로변만 아니라 골목길도 눈여겨봐야 한다. 작은 상점들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쥬얼리가 쇼핑을 생각하고 있다면 리젠트 스트리트(Regent Street)가 좋다. 또 최신 유행을 즐기는 패셔니스타라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을 놓치면 안된다. 트렌디한 핸드메이드 쥬얼리를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며 대형 애플매장도 볼거리 중 하나다.

쇼핑 예산이 아주 넉넉하거나 럭셔리한 아이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영국의 셀레브리티들이 많이 찾는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와 메이페어(Mayfair)가 어울린다. 버버리와 루이비통 등 럭셔리 브랜드가 즐비하다.

시간이 촉박한 여행자라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쇼핑센터 웨스트필드 런던(Westfield London)이 제격이다. 럭셔리 브랜드부터 실용적인 브랜드가 뒤섞여 있으며 수많은 레스토랑과 바, 놀거리가 한 지붕 아래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니크한 영국판의 빈티지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노팅힐(Notting Hill)을 방문하면 된다. 노팅힐은 유명한 영화 촬영지일 뿐만 아니라 핸드 제품과 옛 빈티지 드레스나 독특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illegible]기자

일본 '료칸'에서 겨울 즐기기!

온천여행 중 만나는 가이세키 요리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온천이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추운 겨울 날씨에 수축됐던 근육이 이완돼 긴장이 풀리고 젊은함이 찾아와 심신의 안정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온천여행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료칸'이라고 부르는 일본 전통여관에서 묵는 하룻밤은 다른 겨울여행보다 특별하다. 단순히 목욕을 하는 즐거움에서 더 나아가 온천욕 이후에 맛 보는 화려하지만 정갈한 가이세키요리가 어떻게 새로운 재미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료칸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이세키요리는 에도시대 연회에서 술과 함께 식사를 즐기는 것에서 유래됐다. 매실주 등의 식전주를 곁들인 사키즈케를 시작으로 다음 요리들이 차례대로 차려지는 고급 코스요리로 제철 재료로 차려지는 각 요리는 같은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온천시설로 평가되기도 하는 료칸의 급이 가이세키요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익스피디아 제공

만약 료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당일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도쿄 시내에서 약 한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하코네지역이나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고속버스나 '유후인노모리'라 불리는 기차를 타고 약 두 시간 반이면 찾아갈 수 있는 유후인지역이 온천으로 유명하다. 시내에 호텔을 예약한 후 당일치기로 방문하는 이들이 많아 온천 근처의 다수 료칸에서는 당일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아울러 익스피디아의 '일본 호텔 빅 세일 프로모션' 등 겨울철 일본 온천여행을 만끽하려는 고객을 위해 여러 여행사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맛과 건강을 동시에~

쉐라톤 인천 호텔 제공

쉐라톤 인천 호텔, '웰빙 이탈리안 브런치'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이 1월에서 매주 주말 새로운 이탈리안 브런치 뷔페 타임을 선보인다.

아침에 갓 구워낸 이탈리아식 포카치아와 그리시니, 주금리제 등과 함께 다양한 올리브와 드레싱을 포함한 신선한 안티파스티 샐러드 바가 준비된다.

또 허브에 절인 닭가슴살 요리와 시칠리안 참치 카르파쵸 등의 깔끔한 애피타이저, 그리고 메인 코스요리와 달콤한 디저트까지 총 40여 개의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브런치 가격(세금 봉사료 포함)은 메인 코스요리를 포함해 6만2000원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문의 (032)835-1716~7 /[illegible]기자

특급호텔 가격 다운 마케팅 '눈길'

레스토랑 뷔페요금 내려 고객 유치전

특급호텔들이 새해를 맞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다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그랜드 힐튼 서울은 뷔페 레스토랑의 성인과 어린이의 주말 가격을 인하했다. 성인 가격이 주중과 같은 점심 6만9000원, 저녁 7만 원이며 5세부터 7세와 8세부터 13세까지의 가격도 조정됐다.

롯데호텔서울의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에서는 점심시간 동안 낮아진 가격으로 뷔페를 즐길 수 있다. 성인을 기준으로 주중 저녁과 주말이 9만92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변동됐지만 호텔은 점심시간에 뷔페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위해 주중 점심의 가격을 9만3200원에서 9만 원으로 내렸다.

또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의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모모카페는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하는 고객 성향을 고려해 메인 메뉴가 포함된 디너 뷔페를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2인 세미 뷔페와 메인 메뉴를 함께 이용할 경우 10만5000원에서 11만원대의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메인 메뉴를 포함한 디너 뷔페를 9만8000원부터 맛볼 수 있다. 또 호텔은 슈퍼푸드 위주의 샐러드 바를 구성해 가격 대비 맛과 가치를 더욱 높였다.

더 플라자는 호텔 내 대표 레스토랑 3곳의 수석 셰프 3인이 구성한 코스 메뉴를 특정 요일에 한정해 합리적인 가격에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특히 주말 특선은 11월 30일까지 연중 제공되는 메뉴로 1인당 6만8000원이라는 특별한 가격에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더 플라자는 새해를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중식당 도원과 이탈리아 레스토랑 투스카니에서 주중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 /[illegible]기자

휘닉스파크, S시즌권 특별 판매 개시

강원도 평창의 보광 휘닉스파크가 다음 달 1일까지 휘닉스파크 S시즌권을 특별 판매한다.

이번 판매기간에 구입할 수 있는 시즌권은 총 5종이다.

기존 휘닉스파크 시즌권에 객실 1박 무료 혜택을 추가한 A타입과 렌탈 무료 혜택이 포함된 B타입이 있다. C타입을 구매하면 소인 시즌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즌권만 구매할 수 있는 D타입이 있으며 타 스키장에서 시즌을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A·B·C타입의 가격은 30만원이며 D타입은 25만원이다.

시즌권 구입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CJ몰, 그리고 시즌권 데스크에서 구입 가능하다. /[illegible]기자

'장신 모델돌' 현실 알고 돌아왔다

5인조 그룹 '루커스'

"데뷔 때 목표는 신인왕, 지금은 시상식 참석하고파"
"공백 길지않게 앨범 계획… 대포를 준비하고 있어요"
소통·스토리텔링으로 루커스의 진짜 모습 알리겠다

지난주 두번째 싱글 '브레이크 야(Break Ya)'로 음악방송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낸 신인 아이돌 그룹이 있다. 지난해 7월 '모델돌' '기럭지돌' 등의 수식어와 함께 과격적인 데뷔 싱글 '기가막혀'를 선보였던 5인조 그룹 루커스(예원·조이(최석환)·민경진·김진완·이동현)였다. 무대가 먼저였고 음원은 13일 공개됐다. '선 무대 후 음원'의 시간차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분명해 보였다.

"일단 대중에게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먼저라 생각했어요. '기가막혀'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경진)

"'브레이크 야'는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댄스곡이에요. 지난해에 어둡고 딱딱했던 모습을 시원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기가막혀'는 콘셉트에 초점을 맞춘 곡이었어요. '멋있게 가보자' 했는데 너무 멀리 가버린거죠. 이제 진짜 우리한테 맞는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조이)

그랬다. 지난해 여름 평균 신장 184cm에 달하는 신인 아이돌 그룹의 등장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음산해 보이기까지 한 콘셉트 뮤직비디오에서는 화생방 마스크도 쓰고 나왔다. 신선했지만 충격이 더 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여름이었다. 멤버들은 냉엄한 현실을 바로 알았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죠.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조이)

"당시 '기가막혀' 무대를 일본에서는 좋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일본 'K팝 커버댄스 축제'에 저희곡 카피한 팀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1집을 해외에서 먼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도 생각했어요."(예원)

"당시에는 콘셉트가 좋아서 하긴 했는데 다소 어두웠던 면이 있어서 팬들에게 먼저 다가서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진완)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였습니다."(경진)

"원래 겨울에 나왔어야 됐던 앨범이에요. 당시 나왔던 다른 보이그룹하고 비교해보면 저희만 어두운 콘셉트였더라고요. 팬분들이 무서워했어요."(동현)

루커스 멤버들은 그래서 올 한 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달라진 모습, 아니 좀 더 실제와 같은 본연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요즘 아이돌이 꺼리는 SNS 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보여지 자원이 아닌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겠다는 각오다.

팀 외적인 활동도 준비 중이다. 예원은 조만간 드라마를 통해 연기돌의 면모를 보일 예정이고 조이는 인기 걸그룹 멤버와 듀엣곡을 준비 중이다. 동현은 꾸준히 연기 수업을 받고 있다. 루커스가 일단 잘되고 … 향후에 연기로 도전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룹 멤버 각자의 개성이 팀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요즘, 특히 예능감이 중요해졌다. 루커스는 어디든 자신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메인보컬 조이는 불후의 명곡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꼽았고 유일한 팀 내 랩퍼이자 막내 진완은 '런닝맨'에서 달려보고 싶다며 "'쇼미더머니' 같은 랩 오디션도 자신있다"고 했다. 경진은 의외로 '아이돌 육상대회'를 꼽았다.

"1집에서 현실을 알았다면 2집에서는 팔론을 만들고 싶어요. 공백 길지 않게 앨범을 꾸준히 내리고 준비 중입니다. 대포를 장전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웃음)"(예원)

"세 번째 앨범도 준비중입니다. 대중들에게 루커스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고 싶어요. 잊혀지지 않게 살아남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조이)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디자인/이윤지

star bag

'행오버' 최다 클릭 K팝

월드스타 **싸이**(38)의 '행오버'(HANGOVER) 뮤직비디오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다.

미국 빌보드가 최근 유튜브 조회수를 기초로 발표한 순위에서 지난해 6월 공개된 '행오버'는 1억7000만 뷰를 돌파하며 1위에 올랐다.

박정현 '나가수 3' 가수·MC

가수 **박정현**이 MBC '나는 가수다 시즌3'(이하 '나가수3')의 전면 참가를 확정했다.

15일 '나가수3' 측은 "박정현이 경연에 참여하는 동시에 MC까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시즌제로 첫 선을 보이는 '나가수3'는 오는 30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인피니트H 새앨범 티저 공개

그룹 인피니트의 힙합 유닛 **인피니트H**가 새 앨범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동우·호야로 구성된 인피니트H는 15일 자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앨범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26일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북인천 19, 어버모어와 계약

엠넷 '슈퍼스타K 6' 출신의 **북인천19**(정준호·김강산·만능기·정대광)이 어버모어 뮤직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슈퍼스타K 6' 출연 당시 뛰어난 노래 실력 외에 교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오늘의 연애' 출발이 좋네~

첫날 '허삼관' 제치고 박스오피스 선두

이승기(사진 오른쪽) 문채원(왼쪽) 주연의 영화 '오늘의 연애'가 하정우·하지원 주연의 영화 '허삼관'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선두로 첫 등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4일 개봉한 '오늘의 연애'는 이날 전국 576개 스크린에서 총 2793회 상영돼 13만3752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날 개봉한 '허삼관'은 전국 583개 스크린에서 총 2631회 상영돼 7만3647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했다.

'오늘의 연애'는 '나는 지 운명' '너 사랑 내 곁에'의 박진표 감독의 신작으로 '썸'만 타는 오늘날 청춘들의 연애를 그린 로맨스 영화다. 오랜만에 개봉하는 로맨스 영화라는 점이 젊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허삼관'은 중국 소설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가 원작으로 하정우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다. '오늘의 연애'보다 다소 낮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으나 하정우 감독의 전작 '롤러코스터'보다는 첫 출발이 좋은 편이다.

/장병호기자

넝마주이가 된 이민호·김래원

'강남 1970' 파격 변신… 멘 얼굴·체중 감량

이민호(사진 왼쪽)·김래원(오른쪽)이 영화 '강남 1970'(감독 유하)에서 넝마주이로 변신한다.

15일 '강남 1970' 측은 영화 속에서 강남으로 올라오기 전 넝마주이 생활을 하던 두 주인공 종대(이민호)와 용기(김래원)의 모습을 담은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 속에서 이민호, 김래원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철통에 담긴 죽을 떠먹고 있다. 겨우 모은 돈으로 산 라면 한 개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좋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세련된 이미지의 이민호, 김래원의 파격 변신은 엿볼 수 있다.

이민호는 "넝마주이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로션조차 바르지 않고 맨 얼굴로 촬영에 임했다"며 넝마주이 변신 비결을 전했다. 김래원도 몸무게를 15kg 이상 감량하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캐릭터 표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강남 1970'은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작품이다. 오는 21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관조적으로 담은 가족의 현실… 배우들 흡입력 있는 연기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o@metroseoul.co.kr

■이별까지 7일

"나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엉망이었거든. 그래서 늘 외로웠어. 내 가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밝고 즐거웠으면 했어."

어릴 적,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족은 왜 화목하지 못한 건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가족들도 우리 가족처럼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평온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갖은 상처와 균열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영화 '이별까지 7일'의 한 장면은 가족이 지닌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갑작스럽게 뇌종양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자신을 걱정해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 그 동안 말하지 않았던 진심을 스스럼없이 털어놓는다. 돈도 못 벌어오는 무능한 남편, 속을 알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던 어머니는 그럼에도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족 사이에 숨겨진 깊은 갈등의 골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시이 유야 감독은 이를 비교적 덤덤한 시선으로 담는다. 자칫 신파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시종일관 관조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이별까지 7일'이 지닌 가장 큰 힘이다. 이시이 유야 감독은 극적인 사건을 마주한 가족의 이야기를 오롯이 바라봄으로써 이들이 살고 있는 일본 사회의 단면까지 예리하고 섬세하게 포착한다.

물론 이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버블경제의 몰락에 빠진 채 엄청난 부채를 만들어낸 세대와 그 거대한 빚을 짊어져야만 하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들 가족이 처한 현실을 찬찬히 그려냄으로써 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주연 배우들의 열연도 영화를 더욱 흡인력 있게 만든다.

영화는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어머니의 말은 힘든 세상에서도 사람 사이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장남 코스케에게 선뜻 외근을 허락하는 직장 상사, 아침 TV에서 본 행운의 색의 옷을 입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서는 철없는 차남 슌페이, 그리고 자식들에게 빚을 끼치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언까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손길이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음을 영화는 말한다. 그렇게 작은 희망일지라도 그 속에 빛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 12세 이상 관람가.

'닭치고' 전학생 여진구

18일 '개그콘서트' 출연 코믹 연기

배우 여진구(사진)가 오는 18일 방송되는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다.

오는 28일 영화 '내 심장을 쏴라'의 개봉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여진구는 18일 방송되는 '개그콘서트'의 '닭치고' 코너에 전학생으로 출연해 코믹 연기를 펼친다.

여진구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개그콘서트' 출연을 통해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기대를 갖게 만든다.

영화 '내 심장을 쏴라'는 수리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평온한 병원생활을 이어가던 모범환자 수명(여진구)이 시한폭탄 같은 동갑내기 친구 승민(이민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정유정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여진구, 이민기, 유오성, 김정태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결국 실형

각각 징역 1년 2월·1년…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한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이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유부남임에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15일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검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지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을 했고 스킨십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헌 측은 이지연의 말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판사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연과 다희는 각각 11개와 18개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선고를 앞둔 심리에서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민지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온라인 핫 이슈

클라라·소속사, 성희롱·협박 '맞고소'

배우 클라라(사진)와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각각 성희롱과 협박 등을 이유로 한 맞고소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달 12월 23일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속사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클라라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을 했고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와 이승규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문제로 폴라리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경찰로부터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장병호기자

셀카 '찰칵'… 청순하게 변신한 소유

걸그룹 씨스타 멤버 소유(사진)가 청순한 모습의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14일 씨스타 공식 트위터는 "오늘도 열심히 굿모닝하고 갈게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소유는 한 손으로 브이 모양을 그리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무대 위 섹시한 모습과는 다른 청순한 외모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소유는 15일 래퍼 기리보이와 엠넷 '노머시' 출신 기현과 함께한 신곡 '팔베개'를 공개했다.

'팔베개'는 이단옆차기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로맨틱한 느낌의 러브송이다. 소유는 사랑스러운 음색으로 곡의 중심을 잡았으며 기리보이의 깔끔한 랩과 기현의 차분한 보컬이 함께 어우러졌다.

/장병호기자

'죽음의 질주'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실형

1년 2월 선고… 중대 과실 등 혐의 인정

과속운전으로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사진)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해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 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가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 등 2명이 숨졌으며 코디를 비롯한 4명이 부상했다.

/장병호기자

美 MTV "윤미래, 힙합신의 다이아몬드"

래퍼 겸 보컬리스트 윤미래(사진)가 미국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지난 12일 미국 MTV IGGY는 윤미래를 "한국 힙합신의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하며 그의 데뷔부터 현재까지를 조명했다.

윤미래는 2011년에도 MTV IGGY 선정 '세계 최고 여성 래퍼 12인'에 오른 바 있다. 이번에 MTV IGGY는 윤미래를 랩뿐만 아니라 보컬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가진 뮤지션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윤미래는 "스튜디오에 있으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 좋다"며 "하지만 무대에 있으면 힙합 트랙을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힙합이 좀 더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헤진 바지를 입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힙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TV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우릴 이해해 주길 원했는데 그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미래는 자신의 성공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었지만 음악이 또 다른 직업이었다. 재즈부터 R&B 등 모든 장르를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기자

주말 야식 '빵 vs 치킨'

MBC '전설의 마녀'

SBS '내 마음 반짝반짝'

'전설의 마녀' '내반반'… 방송 시간대 매출 '쑥쑥'

주말 야식 경쟁이 벌어진다. MBC '전설의 마녀' SBS '내 마음 반짝반짝'이 동시간대에 방송되면서 빵과 치킨이 안방 시청자의 구미를 당길 예정이다.

'전설의 마녀'는 탐욕스러운 재벌을 상대로 한 네 여인의 성공 이야기다. 비운의 재벌가 며느리 문수인(한지혜), 억울한 사연이 있는 30년 복역수 심복녀(고두심), 예쁜 사기꾼 손풍금(오현경), 재벌과 엮여 살인자 미혼모 오명을 쓰게 된 서미오(하연수)는 교도소 동기다. 네 사람은 북역 시절 제빵 기술을 배워 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나와 트럭행진을 거쳐 번듯한 제과점을 운영 중이다. "교도소 출신 여자들이 운영 하는 빵집"이라는 사회의 편견과 맞선다.

작품에 등장한 '마녀의 곰빵'이 실제 판매되면서 극적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내 마음 반짝반짝'은 치킨으로 얽힌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이야기한다. 양념 치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진심원조' 통닭집과 대기업 '은닥치킨'의 치킨게임이다. 두 집안의 부모 세대부터 자녀에 까지 이르는 사랑, 갈등을 다룬다. 갑을 논란이 한창인 현재, 대기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영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나게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은닥치킨' 대표 천은다 역을 맡은 배수빈은 14일 제작발표회에서 "출연진과 드라마를 미리 봤는데 치킨이 먹고 싶어져 시청 후 함께 먹으러 갔다"며 "드라마가 10시에 시작된다. 방송 후 많은 시청자가 치킨을 주문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정선 작가는 이날 "닭은 대중적인 음식이었다. 치킨은 자영업도 많다. 음식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작품은 '미녀의 탄생' 후속 작으로 오는 17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신효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미생' 강하늘 연극무대 복귀

박정자와 '해롤드 앤 모드' 호흡

배우 강하늘(사진 오른쪽)이 자신의 고향인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강하늘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미생'에서 장백기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떠올랐다. 영화, 드라마 등 러브콜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연극 '해롤드 앤 모드'를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강하늘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열린 연극 '해롤드 앤 모드' 기자간담회에서 "'미생'이 중후반쯤 들어섰을 때 이 작품을 선택했다"며 "드라마는 순발력을 요요로 한다. 카메라 앞은 무척 치열하다. 연극무대에선 무언가를 배우고 얻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곳에선 내가 가진 능력치가 100이라면 그 모두를 써야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가다간 내 밑천이 드러날까 무서웠다. 나는 무대에서 출발한 배우다. 연극 무대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무대는 내게 집 같은 곳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더니 진짜였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우고 충전하고 또 고생하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롤드 앤 모드'에서 자살 시도가 취미인 19세 청년 해롤드 역을 맡았다. 천진하고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80세 할머니 모드는 박정자(왼쪽)가 연기한다.

한편 19세 청년 해롤드와 80세 할머니 모드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해롤드 앤 모드'는 3월1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오른다. 연출 양정웅. /김지민기자 [illegible]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

장혁·오연서 '어게인 MBC'

'빛나거나 미치거나' 서 연인

배우 장혁 오연서가 MBC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해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왔다! 장보리'의 인기의 주역이다. '빛나거나 미치거나'로 다시 한번 MBC의 흥행을 이끌지 큰 기대를 받고 있다.

15일 상암 MBC에서 열린 MBC 새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 제작발표회에서 장혁은 "새로운 관점에서 광종을 묘사하는 게 마음에 들었다"며 "작품이 괜찮으면 전작이 언제 끝났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장혁은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훗날 광종이 되는 왕소 역을 맡았다. 저주 받은 운명을 타고났지만 자신이 가진 왕재로서의 자질을 깨달아 가는 인물이다.

오연서는 왕소의 인연이자 발해의 마지막 공주 신율로 분했다. 다른 나라의 빛이 될 운명 때문에 죽음을 피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으로 극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빛나거나 미치거나'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로맨스 픽션 사극이다. 고려 초기를 배경으로 한 왕소와 발해 공주 신율의 사랑 이야기다. 오는 19일 첫 방송된다. /신효정기자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누구나 마음속에 아이가 산다

"얼굴은 소년처럼 보이는데 수염이 있는 어른…"

"마음은 아직 아이인데 키만 큰 어른…"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나라 조각가 박진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우리 안에 숨겨진 '아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많은 이 현실에 그 누구보다 아이 같은 여린 마음을 지녔지만 어른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요.

누구든 마음속에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아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생각나는 작품이에요. 힘들고 지치는 날이면 작품 속 주인공들을 보며 '괜찮다' '괜찮다' 제 자신을 토닥거려보고 위안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빠르게 달려와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가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 것 같은 금요일 아침이 되면 괜스레 밀려가는 기분이 들어 서러워요. 내 앞이고 뒤고 따지고 보면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새 세월에 녹아들어 서서히 밀려가는 기분.

세상에서 제일 공평하다는 시간 앞에 홀로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부지런해야 할 날은 더 느리게 흘러가고, 여유 있는 날은 빨리 가버리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우연히 만족을 느끼고. 시간은 제게 늘 반전 있는 단편소설 같아요.

박진성 작가의 조각 작품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른스러운 척 하며 씩씩하게 잘 지낸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칭찬해주라고요."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출근길 명화 한 점」 저자
[illegible]@naver.com

14일 호주 브리즈번 페리 파크에서 훈련 중인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호주전 자존심 회복 나선다

부상 선수들 컨디션 조절 순조… 내일 조 1위 결정전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조별리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내용으로 실망을 안긴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17일 호주전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7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5 호주 아시안컵 A조 3차전에서 호주와 맞붙는다.

한국과 호주는 앞서 펼쳐진 두 차례 경기에서 각각 2승을 챙기며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3차전 승부로 조 1위를 결정한다.

호주는 골득실에서 한국보다 +5골 앞서 비겨도 조 수위를 차지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조 1위를 차지하면 브리즈번보다 스타디움 상태가 나은 멜버른에서 8강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표팀에게 조 1위보다 시급한 것은 쿠웨이트전 졸전으로 무너진 선수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호주는 이번 대회 1, 2차전을 치른 오만, 쿠웨이트와는 차원이 다른 강팀이다.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조련해온 한국 대표팀의 노골적인 전력과 색채를 보여줄 시금석으로 호주가 주목되는 셈이다.

한국은 호주를 꺾고 난국을 헤쳐가는 해법을 찾으면서 우승 동력도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부상으로 떠난 이청용(볼턴)은 없지만 아쉬워할 때는 이미 지났다. 감기 몸살로 앓아누운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마인츠), 골키퍼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은 모두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리를 다친 오른쪽 풀백 김창수(가시와 레이솔)도 치료를 마치고 컨디션 회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주와의 3차전에서도 슈틸리케 감독은 4-2-3-1 전술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전방 공격수 조영철(카타르SC)이 건재한 가운데 지원 스트라이커로는 구자철, 좌우 윙어로는 손흥민, 남태희(레퀴야)가 출격한다.

중원은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가 버틴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김창수, 센터백은 김주영(FC서울), 장현수(광저우 푸리), 골키퍼는 김진현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호주와 지금까지 24차례 맞붙어 6승10무8패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는 한국이 69위로 100위를 달리는 호주보다 높다.

/김민준기자 sullenk@metroseoul.co.kr

중국 "강적 호주보다 한국 원해"

B조 1위로 8강 진출 – 페랭 감독 이후 승승장구

2015 호주 아시안컵 B조 1위를 확정지은 중국이 8강 상대로 한국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알랭 페랭(67·프랑스) 감독은 1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2-1로 승리한 뒤 8강에서 호주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압한 중국은 2승으로 18일 북한전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중국은 8강에서 A조 2위와 맞붙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6위인 중국은 우즈베키스탄(71위)이나 사우디아라비아(102위) 등에 밀려 탈락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 내내 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은 A조 2위와 함께 8강전을 벌인다. 17일 열리는 한국과 호주의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한국이 조 1위가 되지만 비기거나 호주가 이기면 호주가 1위를 차지한다.

페랭 감독은 "호주는 쿠웨이트, 오만과의 경기를 통해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호주와는 만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호주 아니면 한국과 8강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호주를 피하고 싶다는 말은 "한국이 더 편하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 셈이다.

페랭 감독은 2004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이후 중국을 11년 만에 이 대회 8강 무대에 복귀시켰다. 그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에도 8강부터는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중국은 18일 캔버라로 이동해 북한과 3차전을 펼친다. /장병호기자

강정호 향한 뜨거운 관심

MLB닷컴 "한국 팬 자존심 안고 출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정호(28·사진)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이하 한국시간) "강정호가 14일 개인의 희망과 한국 팬의 자존심을 안고 미국 피츠버그로 출국했다"며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강정호에 대해 MLB닷컴은 "강정호의 활약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4년 계약을 맺은 강정호는 16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바람대로라면 조디 머서와 주전 유격수 경쟁을 펼칠 것이고 2루수 혹은 3루수로 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정호의 경쟁자로 꼽히는 피츠버그 유격수 조디 머서(29)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같은 날 "강정호가 자신감을 품고 미국으로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머서의 발언을 전했다.

머서는 "우리는 그의 자신감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팀의 한계는 오직 하늘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와의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현지 언론들은 피츠버그와 강정호가 4년 동안 1600만 달러(약 174억 5200만원)에 계약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김광현 "올해 이닝 늘려 ML 재도전"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잠시 미룬 좌완 에이스 김광현(26·SK 와이번스·사진)이 새 시즌을 앞두고 굳게 다짐했다.

15일 스프링캠프로 향하는 김광현은 "시련이라면 시련이랄 수 있는 과정을 겪었지만 새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입단 계약에 실패한 그는 "처음에는 실망도, 후회도 했다"며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마음으로 올가지게 김광현다운 모습으로 던지겠다"고 새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광현은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지, 부상 여파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앞으로 더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스프링캠프에서 컨디션을 조절해 시즌 시작 직전 몸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김민준기자 mjkim@